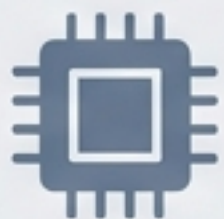


2026년 8월 14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및 경영진 요약



코스피 & 닛케이 랠리

반도체 주도 장세로 코스피 6,800선 탈환. 기관 순매수에 따른 뚜렷한 단기 매수 기회 형성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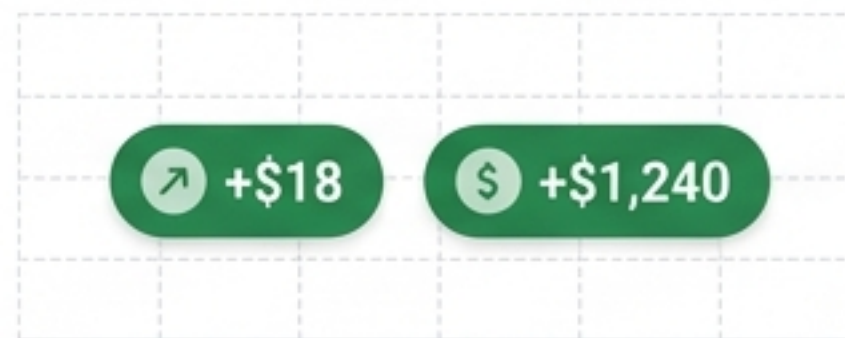
미 인플레이션 완화

금리 인하 기대 및 달러 약세(원/달러 1,445원). 위험자산 선호 확대로 다우존스 2.64% 급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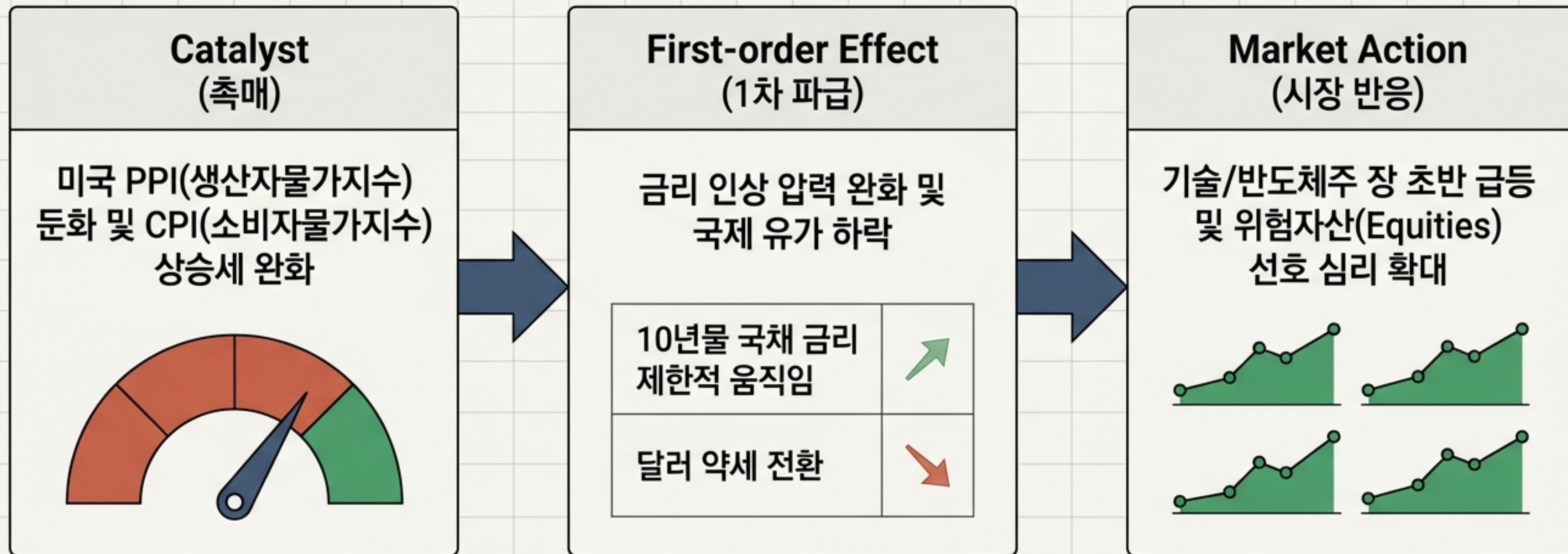


포트폴리오 헤지 수요

비트코인 및 금 상승 지속. 단기 매수와 동시에 금/에너지 롱 포지션을 통한 리스크 헤지 권장.



미국 물가 지표 둔화가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촉발했습니다



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글로벌 시장 전반에 지속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물가 안정화에 화답하며 전 세계 주요 증시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

Europe (유럽)

DAX: 24,998.00 (+0.80%)

FTSE 100: 10,556.00 (+0.79%)

STOXX 50: 5,520.00 (+0.62%)

AI 피로감을 피해 글로벌 자금이 유럽으로 이동.
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로 방산주 강세.

Asia (아시아)

닛케이 225: 56,734.00 (+0.46%)

- 엔화 약세 및 반도체 강세.

항셍: 22,944.00 (+1.59%)

상하이종합: 3,215.00 (+0.45%)

Oceania (오세아니아)

ASX 200: 8,555.00 (+0.52%)

- 자원주 중심 상승.

AI·반도체 테마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증시 랠리와 유럽 증시 재부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.

다우존스가 홀로 2.6% 급등한 반면 기술주는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

The Outperformer

DOW JONES

53,791.90

+2.64%

전통 가치주 중심의 강한 자금 유입.

The Sidewalkers

NASDAQ

26,588.49 (+0.00%)

S&P 500

7,748.50 (+0.00%)

장 초반 반도체주 동반 강세를 보였으나,
솔리다임(Solidigm) 나스닥 상장 논란 등 개별 기업
이슈가 투심을 억제하며 횡보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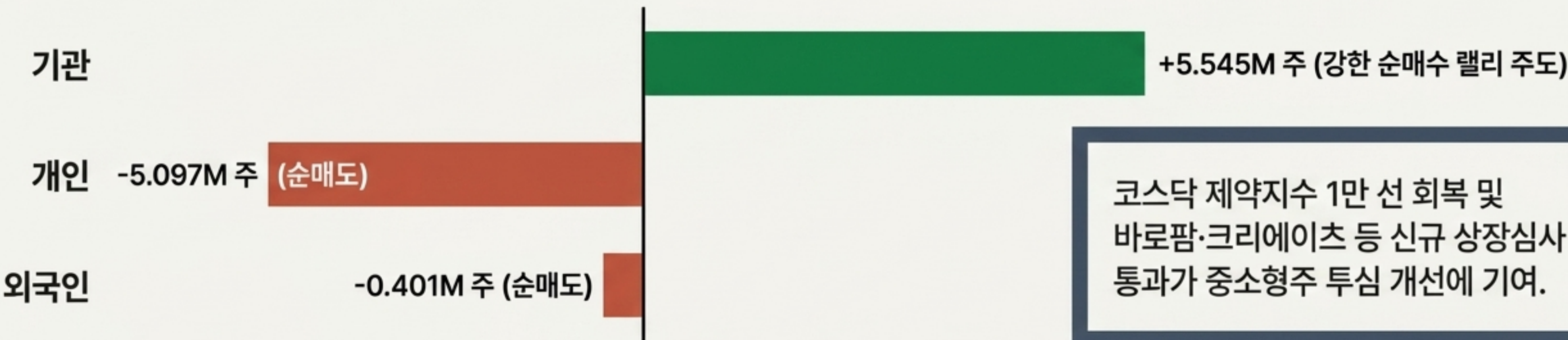
부동산(+7.42%) 및 에너지(+2.00%) 섹터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, 유틸리티(-1.70%) 및 생활필수품(-0.53%)은 약세.

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코스피 6,800선과 시총 6천조 원을 탈환했습니다

KOSPI
6,813.34 pt
+234.30pt
(+3.56%)

KOSDAQ
861.37 pt
+2.46pt
(+0.29%)

증시 시가총액 6천조 원 회복.



코스닥 제약지수 1만 선 회복 및
바로팜·크리에이츠 등 신규 상장심사
통과가 중소형주 투심 개선에 기여.

KOSPI 섹터별 1일 및 1주 모멘텀에서 뚜렷한 명암이 교차했습니다

Winners (상위)		
제조업	1D: +1.81%	1W: +14.80%
기계	1D: +1.65%	1W: +7.25%
비금속광물	1D: +1.49%	1W: +6.43%
의료정밀	1D: +1.27%	1W: +7.33%
건설업	1D: +1.10%	1W: +6.26%

Losers (하위)		
전기가스업	1D: -5.25%	1W: -4.66%
운수장비	1D: -4.61%	1W: -4.43%
보험	1D: -2.26% [단기 차익 실현 주의]	1W: +18.68%
통신업	1D: -2.15%	1W: +0.72%
금융업	1D: -2.13%	1W: -0.91%

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의 랠리를 압도적으로 견인했습니다

삼성전자

현재가: 268,000원

등락률: +4.89% ↑

시가총액: 1,566.8조 원

삼성그룹 시가총액 2,000조 원 회복

78%

SK하이닉스

현재가: 1,593,000원

등락률: +5.92% ↑

시가총액: 1,163.7조 원

뉴욕 증시 장 초반 SK하이닉스 ADR 9% 급등 및 SK그룹 시총 1,420조 원 기록.

Bottom Catalyst Panel

싱가포르 테마섹(Temasek)의 투자 기대감 유입 및 글로벌 AI 훈풍이 맞물리며 '100조+α 환원' 기대감이 랠리의 직접적 도화선으로 작용했습니다.

국채 금리의 매파적 기조 속에서도 달러 약세가 시장 자금을 이동시킵니다

자산	현재가	변동	시장 시그널 (Macro Driver)
미 국채 10Y (US 10Y Treasury)	4.692%	+5bp ↑	FOMC 매파 기조에 따른 단기적 상승 압력 잔존.
달러인덱스 (DXY)	0.5	-0.32 ↓	약 6거래일 만의 달러 약세 전환.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이동 촉진.
유로/달러 (EUR/USD)	1.1790	+0.0031 ↑	ECB 금리 경로 재평가에 따른 유로화 강세가 달러 약세 압력 가중.
원/달러 (USD/KRW)	1,445.00원	-5.30원 ↓	달러 약세에 연동된 원화 강세. 외국인 자금 이탈 방어 및 국내 증시 부양 효과.

지정학적 불확실성과 ETF 자금 유입이 금과 비트코인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

WTI 원유 (Energy)

데이터: \$81.02 | **+\$2.62**

동인: 호르무즈 협상 교착(지정학적 리스크) vs OPEC/IEA 석유 수요 전망 하향(수요 둔화).

결론: 두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며 단기적 보합세 형성.

금 (Gold / XAU)

데이터: \$11 | **+\$18**

상승세 지속

동인: 미국 금리 인상 기대 약화 및 차익 실현 매물 공방 속에서도 견조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.

비트코인 (Bitcoin)

데이터: \$67,350 | **+\$1,240**

급등

동인: 현물 ETF 순유입 지속 및 대체 헤지 자산으로서의 지위 강화.

주식 랠리(위험 선호)와 금/비트코인 동반 상승(안전/대체자산 선호)이 공존하는 바벨(Barbell) 장세가 전개 중입니다.

단기 매수 기회 활용과 함께 금 및 에너지 롱 포지션 헤지가 필요합니다

주간 증시 캘린더 (8/14 ~ 8/21)



미국의 강력한 소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소매유통기업 실적 릴레이.



화요일 (8/18) |
🇺🇸 HD (Home Depot) 실적 발표.



목요일 (8/20) |
🇺🇸 WMT (Walmart) 실적 발표.

Note: 두 실적 발표 전후로 소비 둔화 여부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주시.

이그제큐티브 투자 전략

1

Buy Signal (매수)

반도체가 주도하는 코스피·닛케이의 기관 순매수 랠리에 탑승하여 단기 매수 기회 적극 활용.

2

Hedge Strategy (헤지)

환율 하락(달러 약세)과 비트코인/금 상승세가 헤지 수요를 자극 중. 포트폴리오 변동성 축소를 위해 금 및 에너지 롱(Long) 포지션 구축 고려.

3

Monitor (관찰)

물가 완화(PPI/CPI 둔화)가 불러온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실물 경제 지표(소매 실적)로 온전히 지지받는지 교차 검증 필요.